

수능국어 민트레몬입니다(진지)

Prg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어서

Prg

그럴 수도 있죠.

Prg

진 안 어색합니다. ㅎㅎ

어 컴퓨터이신가요

Prg

폰이긴 한데 아이패드로 할까요?

일단 넘도 지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Prg

프로 12.9 옆에 있습니다

보면서 들어가야

넵

Prg

ㅇㅋ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 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

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㉓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㉔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㉕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 )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큘큘 시작하겠습니다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아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나 봅니다.

Prq  
넵

구성 요소를 3개 얘기했어요. 송신기, 채널, 수신기.

이렇게 기술 전문에서 구성요소를 얘기하면, 뒷 부분의 내용을 읽어갈 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에버블랜치 광 다이오드 지문이나 씨디 드라이브 지문처럼 각 위치나 부품이 글의 서술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송신기 보내는 쪽 채널(원지 모름) 수신기 받는 쪽

아 그러니까 채널은 중간통로 얘기가 봅니다.

보내지는 것이 데이터인가 보고(상식적)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상식적으로 당연, 느리면 짜증나잖음 글을 읽어가며 이 목적 두 가지  
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생각하면 전체 독해에 도움이 됨)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아 데이터가 날 것이 아니라 부호화 즉 부호로 바뀌어서 전송, 보내지나 봅니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⑥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데이터의 예시로 영상 문자가 있는 거겠고(상위하위개념, 넘나 당연)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짜증-\_-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_- 이나

?

표시하기도 합니다

Pr9

그림군요

기호 집합이 뭔지 이 조합이라는 것이 뭔지 상식적으로 알 바가 없으므로 뒤에서 설명할거예요

예를 들어,

역시 제 생각대로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거나 봅니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 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아 기호 집합은 그 구성요소들 짚인 거고 그걸 조합해서 만든 저런 단어가 데이터, 즉 의미 있는 정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들으로써 개념을 이해시켜주는 문장이네요.

2번째 문장 이제 이해됩니다.

패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이 또한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Pr9

그러게요 넵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일단 수직적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중요하진 항상 내는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읽습니다.

Pr9

넵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과 그 기호의 정보량은 반비례적인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를 반비례라고 쓰기도 하고,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분명 문제에 나올 테니까요.

일단 짚 둘러 읽으며 정리합니다.

필기하면서 듣는 중

o o 그림 더 읽어 보죠

넵

일단 관계정리하구요

한 번 생각도 해 봅시다

기호의 발생확률이 높으면 왜 기호의 정보량은 적은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두 개 정도의 학생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1. 모르겠다 일단 받아들이고 진행한다.

2. 어 발생 확률이 높으면 발생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기호가 발생했을 때 정보량(예측의 정도)는 적다는 정도의 뜻이 아닐까?

이거슨 독자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둘 다 괜찮습니다

Pr9

전 수능날 1과 2의 중간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게 보통이고 잘한 편에 속함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일단 새로운 정의이고

정리하고,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즉,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 응??

생각해 봅시다

정보량이 1 9 인 경우 발생 확률 9 1 정도로 예상가능

정보량이 5 5 인 경우 발생 확률 5 5 정도로 예상 가능

(극단적 예시 들기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거는 평균 정보량 9 뒤에 거는 25

Pr9

저도 그러면서 일했던 거 같습니다

아 그런 내용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감

여기서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는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아 발생확률이 비슷하면 예측하기 힘들고 무질서도가 큰 건가

정도로 한 번 생각 가능

Pr9

네넝

이제 2문단

넘어가기 전에 대충 문단 내용 생각하고 넘어가고

2문단 첫 문장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 학생은 별로 체크할 것이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가 순서대로일 것이고 그게 일어나 부호화가 일어나는 구나 정도일거예요.

근데 문단에서 아까 뭐 줬죠?

님 대답 0 0

Pr9

구성 요소랑

데이터를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요?

이런 글에서 구성 요소 0 0 항상 생각하고 읽으셨죠.

송신기 채널 수신기 줬어요

그러면,

2문단 내용은 송신기 내용이구나

라고 구획하며 읽을 수 있죠

다음 문장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소스부호화 1번 먼저 설명할 거 같아요.

이때 첫 문장에 저는 1,2,3, 쓰여 있어요.

그리고 소스 부호화에 1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0 0 이진법 압축 0 0 알기 같은 넘어감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아 이 예시를 통해 비트가 뭔지 0,1 같은 구성요소

비트수 구성요소인 비트수의 개수구나

예시를 통해 개념을 설명해주는 문장이예요.

한번 내 말로 정리하고 넘어가요

(본인 언어로 이해하기)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

두 번 읽음

어 엔트로피는 아까 말했는데??

문단에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이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즉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은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이런 뜻인가?

근데 왜 최솟값이지?

여기서 학생 들로 나눠

1. 모르겠으니 정리하고 넘어감

2. 문단에서 데이터를 바르고 정확하게 전송이렸음.

여러 비트로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을 듯

그래서 최소값을 엔트로피로 정하기로 한 건가?

정도로 넘어감

좀 더 궁금하면,

<http://cafe.naver.com/pnmath/1546250>

어 여기 제가 술머그리 가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설명해 놓은 거

그니까

제가 1.2로 나누는 거는

Pr9

안 망한 학생 기준

1 그래도 모르면 받아들이고 맞아야한다 수험생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Pr9

o 2

아 그건 당연한 거고

2. 김동욱 선생님 식으로 사고를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풀이

개인적으로 항상 그로 풀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라 2 정도의 매뉴얼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Pr9

o o o

과인 포터와 논리 실증주의자도 마찬가지

Pr9

그 아이는 이런 질문도 하더라구요

과연 슈터문에서 타원 정의를 이해하고 풀었을까 문과학생들이

그니까 나는 둘 다 해주려구요

Pr9

네넵

근데 지엽적

ㅋ ㅋ ㅋ ㅋ

Pr9

ㄴ ㄴ 풀기중이라 꿀잼

아라더요

넘어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㉔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저 구성요소 일 문단에 있는 거

밑에랑 잇기도 해도

아 수신기에서 부호를 기호로 다시 되돌리는 것, 복원하는 거나

Prq

아 넵

이 문단 구성요소 유의에 둔 학생들은 뭐를 읽었다?

Prq

그래서 색깔 동일한 거긴 한데

하튼 넵

이 문장에서 수신기가 등장하는 걸 읽었죠

지금 보내는 쪽 이야기인데

아 수신기로 받으려면

나중에 받았을 때의 비트수가 아까 엔트로피 즉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네.

엔트로피랑 최소값 계속 바뀌워 가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되죠

크거나 같아야

아 당연한 이야기 0 0

0 ㄱ?

Prq

0 ㄱ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응 정의

왜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워?

아 일 문단에서 말한 효율성

아 그럼 좀 효율적이고 좋은 부호화 방법의 일종인가보다

기본 좋음

나는 산을 넘었음 0 0 0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제 좀 알 듯 말 듯함.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

좀 짜증

이제 넘었는데 이건 또 무슨 덕지덕지

알든 허프만 부호화가 그중 하나니까

효율적인 부호화

엔트로피에 가깝게 하는 부호화겠네 하위 개념

생각

그 방법을 어떻게?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아닌 건 반대로

아 당연하지 많이 생기는 거 정보값 적으면 효율적이니 이렇게 배치하겠네.

2문단 끝

다시 정리

어 뭐 읽었지?

송신기에서 하는 짓

엔트로피 부호화 그 중 허프만 부호화

소스 부호화는 송신기에서 하는 짓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어 이거는 2번째 부호화네

생각 아 아 첫번째 소스 이거 두번째 나중에 세번째 나열기임

채널부호화는 오류 검출 정정 잉여 정보 추가?

아 그래 오류는 나면 안 되고 고쳐야지 심정적으로 알겠어.

근데 잉여 정보를 추가한데 좀 짜증남

왜냐면 난 효율성 따지고 글을 읽고 있었음

짖든 뒤에서 더 설명해 줄 기임 넘어감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는 아 그래 '채널'의 잡음으로 인한 것 해결 그래서 채널 부호화라고 하는 군

그래 잉여 정보 아까 얘기함

문제와 해결의 양상이네.

이런 건 항상 출제하니 잘 챙겨두고..

실제로 43의 4번 선지 출제~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아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구나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는 상위 개념이고

그 종류들은 여러 가지 있나 보네

그래도 하나씩만 설명하니 완전 감사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감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말 그대로 삼중 반복

세 번 반복

알았어 넘어가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어 수신기?

이거 신경 써서 읽어오지

수신기에서 판단을 하네 그래 삼중이 아닌 상태로 돌려야 하니까

o o

o o 다수결로 하는 군 남들

몰랐어도 뒤에 예시 좀 그걸로 남들

이게 45번 1번 선지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아 아까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거겠지 정정된다 다행

근데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네?

헐 좀 그르다

정도 생각함

실제로 45번 5번 선지 정답 선지로 출제됨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이건 뭐 또 더덕더덕 붙은 정의야

왜 붙여놨을까

문제로 내겼네

(그 콘크리트 지문에서 포아송비 문제와 같은 내용)

실제로 45번 4번 선지로 출제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이 문장 주기 전에 나는 벌써 계산했음

근데 이 문장 준 다음에 영점점 33을 3분의 1로 고쳐서 이해해도 무방

헐 힘드러여

이거 나 혼자 안 읽고 진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Pr9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π π π π 파이팅

수능이후로 안 읽음

실시간 사고의 과정

이제 한 문단 남음

신나 1 2 나

감시다

Pr9

넵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어 전송 전에 변환?

그럼 지금까지 읽은 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

송신기에서!

그래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보내겠지 당연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 송신기에서

중요하잖습니까? 실제로 45번 1번 선지로 출제!!!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0 은 아날로그 정보인데 이걸 전기로 보내야 되니 그걸 전압을 조절해서 표시하나 보내

드디어 3번 선부호화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 이쯤 되면 배반하다

선 부호화 중에 하나로 설명하겠네

피탐 글 진짜 짜증

그치만 읽음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차동?

차동오용?

뭔 뜻인지 모름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 체크

다시 생각

차이가 나면 동작, 움직임이다, 변화시킨다 뭐 그런건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응? 그래 될 대로 되라 쓰는 그대로 읽어줄게.

기준 그래 필요하겠지 ㅅㅂ

ㅋㅋㅋㅋ

짜증난다 설명해라 평가원!!!!!!!!!!!!

prg

ㅋㅋㅋㅋㅋㅋㅋㅋ

어 그래 예시 들었구나 고맙다 ㅠ ㅠ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응응? 뭐라고 이쯤 되면 수험생 다 짜증남

ㅋㅋㅋ 근데 나는 사실 재밌게 읽음 ㅋㅋㅋㅋ

prg

저도 ㅋㅋㅋㅋ

어 그래 일단 기준

+

prg

그리고 봉소오프 그회차쯤에  
이런 거 있었어서  
개꿀~ 하면서 읽음  
뭐 정확히는 좀 다른지만

이이면 유지니까

아 그래요?

저 파일널 바로 전에 퇴사

그래서 이거 그냥 날거로 읽은 거

prg

ㅇ ㅎ

재셋든 넘어가죠.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아 씨 이거 분명 적용 문제번다

시간 걸려도 따지면서 이해하자!!!

실제로 이 수능 가장 오답률 높았던 킬러 문항 46번으로 출제!!!! 별 때때!!

+이 기준

0이면 유지

그니까 +

1이면 변화

-

1이면 변화

+

0이면 유지 +

맞나?

어 맞네

실제로 일하면서 옆에 씬 0 0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응 그래 다른 기준이면 완전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은 거 같다

이해 됐다 끝

이제 문제 순삭

43번

1번 선지 압축 채널 아님 채널은 오류 고치기 위해 잉여 정보

아 실제로 저 이거 쓰기로 결정하고 지금 첨 보는 거임 문제 다시

ㄷ ㄷ ㄷ ㄷ 틀림

Prg

ㅋ ㅋ ㅋ ㅋ ㅋ ㅋ ㅋ

2번 선지 수신기가 부호를 기호로?

ㅇ ㅇ 그렇지 않나

다시 원래대로

3번 잉여정보 압축할라고 준 정보 L L → 아까 저처럼 반응하면서 일었다면 쉬웠음

4번 잡음 오류 발생해서 채널보호 하는거

5번

추가 L L

44번

11번 당연

2번 다 같아야 최대했음

이게 답임

45번

1번 수신기에서는 전기 신호를 받는 거 틀리미

2번 정보량이 많다 발생확률이 낮다 비트수 크다 틀림

3번 잉여정보를 추가하여

4번 어 분모가 더 커지니까 부호를 잡아줌

5번 어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이거 답

이 000 됐는데 이 되면 1로 칠거임

o o

파라오고 있습니까

사십육 풀기 시름 사십칠 풀것은

Prg

닝

보내는게 이별이 아니고, 문자같은 기호가 테이스트 아니고, 부호가 부자가 아님

답 4번

5번 선지까지 보면 결정된다랑 그 에센쓰랑 다름

이제 46

보기 보

발생확률같다

1/4 이군

알았어 이제 문제

1번 엔트로피는 필요한 최소 정보량

다 두 비텐데? 강 2

2번

그냥 순서대로

이

10

00

이

이100001

틀림

3번 세 개씩 묶어 끊어

이랑0

1

0

똑같은데? 틀림

4번 비는

10

이니까

삼중하면

111000

기준이 + 이면 변환인가 옆에 살짝 보고

-

또 변환 +

또 변환-

유지 3번 ----

이거 답

끄음

다해따

힘들다

나 어제 밤새었다

Pr9

또 밤새었?

할

해설

되게 오래 걸렸네요

죄송

미안

쏘리

Pr9

가 차 가 차

오랜만에 풀어서 틀리는 줄 ㅋㅋㅋㅋ

Pr9

재밌었음

일고 할 걸

갑자기 그 칼럼 이미지 할라니까 귀찮아서

한 번 말로 해보고 싶었음



후기를 알리게 달라

솔직 평

prg

음

이게 쓰면서 보면서 하면 더 쉬울텐데

문장 길어오고

아주 지랄 ㅋㅋㅋㅋ

팩폭 환영

prg

지문 앞부분을 끌어다

여기하는 부분은 좋았으나

확실히 채팅 타킷이 크긴 한데

뭔가 임팩트가 필요함

나도 알

ㅋㅋㅋ 그데 우리 여기 들어오고 댓글 폭발

prg

ㅋㅋㅋㅋㅋㅋㅋㅋ

ㄷ ㄷ ㄷ ㄷ

prg

ㄷ ㄷ

후기랑 보완 방향도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니까 제가 고민인 게

Pr9

한 번 짧게 목소리로 해봐요

학생들은 멧있는 한방을 원하잖나요

Pr9

그냥

근데 그게 학생들이

못하면 무슨 소용

Pr9

ㄹㅇ 그런데

어차피 상법인데 뭐..

그렇게 치면

둘 다 섞으면 너무 무난하지 않아요?

하나만 해야 해

동육쌤처럼 하거나

방법론을 가거나

제가 동육쌤 수제자니까

나도 동육쌤처럼 예시 더 들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거든요?

Pr9

근데 애들이 과연 반복될까

싫어요

시험장에서 저게 다 될까

그냥 유명세 포기하고

Pr9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애들이 할 수 있게 똑같이 읽을 수 있게

반복

Pr9

채팅이라 그렇지

목소리로 상상하면 ㅅ ㅈ ㅊ

애들한테가 있잖아 똑같이 읽어보자

뭐 이렇게 몇 지문 소개하면

Pr9

애들이 비슷한 거 나오면 하겠지

(이게 스키마라는 겁니다)

Pr9

좋은 듯

그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솔직히 동욱쌤 멋있는데

애들이 다 못할 거 같아요

애들이 다 금머리고 서울대생 수준 아니자나요

Pr9

맞아욘ㅋ

다 못하죵

그리고 이렇게 배워야 안 당황하고

안정적인 100 나와요

저 42시간째 기상 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흑흑흑

Pr9

42시간 ㅎ ㄷ

나 좀 있다 출근함

ㅋㅋㅋㅋ 여기 강의 경력 0인 신입 강사가 있습니다.

Pr9

하여튼 전 님 목소리 톤 따라 갈 듯 ㅋㅋㅋㅋ

응?

목소리 성형 가르아~~~

수고하셨습니다.